



<그림 9> 간물단지

출처 : 울진문화원

4. 간물단지 전설

골마(麻山) 부락을 개척할 당시 매년 큰 화재(火災)가 발생하여 주민들이 걱정하던 중 도승(道僧)이 지나가다가 마을 앞산(南山)을 보고 산(山)이 화형(火刑)이므로 산 정상(頂上)에 지리항아리를 묻고 간물[바닷물]을 채워 놓아야 재앙(災殃)이 없을 것이라 하여 주민들이 이를 행하였더니 이후부터는 화재(火災)가 나지 않았다고 한다.

제11절 이평1리(梨坪一里)[속명 : 비지]

1. 마을의 자연환경

동쪽은 다천2리(茶川二里)와 접하고 서쪽은 매화면 길곡리와 인접(隣接)하였으며, 남쪽은 황보리와 닿으며 북쪽은 매화면 갈면리와 연접(連接)하고 있다.

2. 마을의 역사

1592년경에 정민호(鄭珉鎬)라는 선비가 임란(壬亂)을 피하여 마을에 들어와 개척하였다

고 전하며 느티나무가 많아 “비지”라 하였다. 자연부락인 목과(木果)는 고목(古木)이 울창하고 감나무가 많아 붙여진 이름이다.

3. 가구 분포

총 21세대가 거주하며 김해 김씨(金海金氏), 봉화 정씨(奉化鄭氏), 평해 황씨(平海黃氏), 밀양 박씨(密陽朴氏) 등이 분포하고 있다.

4. 마을의 특징

1) 비구정(比丘亭)

조선 선조 때 아계(鵝溪) 이산해(李山海)가 평해(平海)에 유배되어 지내던 곳으로, 경치가 수려해 비구정(比丘亭)이라 하였다. 지금은 정자(亭子)는 없고 느티나무만 울창하다.

제12절 이평2리(梨坪二里)

1. 마을의 자연환경

동쪽은 다천2리와 연접(連接)하고, 서쪽은 비지마을과 접(接)하였으며, 남쪽은 황보리와 인접(隣接)하고, 북쪽은 방울리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마을회관은 2008년에 건립되었다.

2. 마을의 역사

1592년에 반광문(潘光文)이란 선비가 임진왜란을 피해 들어와 마을을 개척하였다고 전하며 산야(山野)에 돌배나무가 무성(茂盛)하여 이평(梨坪)이라 하였다. 심수마을은 약 300년 전에 백문치(白文致)라는 선비가 마을을 개척할 때 고산준령(高山峻嶺)과 깊은 계곡(溪谷)에서 물이 흘렀으므로 심수(深水)라 불렀다.

3. 가구 분포

총 22세대가 거주하며 거제 반씨(巨濟潘氏), 대흥 백씨(大興白氏), 순흥 안씨(順興安氏),